

‘주방의 혁신-디스플레이의 진화’, 미래가전을 이끌다



냉장고·QLED 8K·패밀리허브 등 혁신제품 총출동... 관람객 '시선집중'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5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8'에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이며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영국서 '최고의 제품' 호평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최고 권위 소비자 연맹지 '위치(Wiich)'로부터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양문형 냉장고를 전시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위치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양문형 냉장고 'RS8000 NC' 가운데 패밀리허브 모델을 비롯한 4개 모델은 최고 점수인 86점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고, 3개 모델은 85점을 기록해 총 7개 모델이 상위권을 모두 석권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위치에 새롭게 등재된 7개 제품 모두는 냉각 속도·냉동 속도·안정성·관장 온도·에너지 효율성 등 성능 관련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5Star'를 획득했으며, 소음 항목은 '4스타'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8을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삼성전자 부스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삼성전자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8을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삼성전자 부스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삼성전자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특히, 위치는 "실은 상태에서 식재료를 빠르게 냉각·냉동해 신선하게 보관하는 성능이 뛰어나고, 외부 온도 변화에도 내부 온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 온도를 정확하게 구현한다"며 극찬했다.

위치는 7개 모델 전부를 베스트 바이(Best Buy)는 물론, 에너지 세이버(Energy Saver)로 선정해 우수한 에너지 절약 성능을 호평하며 소비자에게 구매를 추천했다.

◆QLED 8K, 디지털 캠페인 실시

'IFA 2018'을 통해 'QLED 8K'를 공식 출시한 삼성전자는 화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 기간 동안 현지에서 디지털 옥외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다가올 가장 중요한 TV 트렌드 중 하나인 '초대형 스크린

시대의 도래'로 정의하고, 이번 행사에서 85형 QLED 8K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독일 베를린 내의 랜드마크 3 곳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QLED 8K의 출시를 알리는 '퍼펙트 리얼리티'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광고는 8K 초고화질을 실감할 수 있는 '우주', '스포츠', '음식' 등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상영됐다. 삼성전자는 "현장에서 그림인줄 알았던 화면 밖으로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등 QLED 8K만의 현실감 넘치는 화질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함께 연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소개했다.

QLED 8K는 초고해상도 화질과 쿼터닷 소재의 감정이 결합된 제품이다.

대형화면에서도 뛰어난 명암비와 밝기, 세밀한 색상표현 등이 가능해 입체감 넘치는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QLED 8K에는 저해상도 영상을 자동으로 8K급으로 변환해주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탑재해 화질과 사운드까지 콘텐츠 특성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다.

◆쿠킹쇼 '삼성 스마트 라이프 레시피' 선보여

삼성전자는 삼성의 최첨단 주방가전을 효과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지난 30일 독일 명품 가구 놀테(Nolte)와 협업해 최고급 빌트인 가전 전시존을 마련하고 '삼성 스마트 라이프 레시피'를 주제로 쿠킹쇼를 열었다.

쿠킹쇼에서는 삼성클럽드 셰프 소속 셰프들이 냉장고 속 식재료 확인, 메뉴

선택 등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AI·IoT 기능을 활용해 직접 요리하며 삼성전자가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한층 편리하고 스마트한 삶을 전했다.

셰프들은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허브의 '뷰 인사이드' 기능과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스마트레시피' 기능을 이용해 요리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특히 '듀얼 쿡 플렉스' 오븐을 활용해 두 셰프의 각 요리를 동시에 조리하는 장면은 관람객들의 큰 주목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내부 공간을 둘로 나눈 한편, 상단·전체 도어를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플렉시블 도어'를 적용해 각기 다른 온도와 시간으로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국과 덴마크의 디자인팀 스위프트 크리에이티브스의 매튜 커커릴 디자이너가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의 한종희 사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QLED TV 매직스크린 대상에 '물고기 모빌'

스위프트 크리에이티브스팀 수상

삼성전자가 영국 디자인 전문 매체 디자인(Dezeen)과 공동 주최한 'QLED TV 매직스크린 공모전'에서 '물고기 모빌'을 대상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31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 2018에서 최종 우수작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삼성전자 TV 디자인 공모전은 2018년형 QLED TV에 새롭게 탑재된 매직스크린의 진화된 사용성을 주제로 6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했다.

매직스크린은 TV가 꺼졌을 때 검은 화면이 아닌 뉴스, 날씨, 사진, 음악 등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생활정보를 제공해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는 2018년형 삼성 QLED TV만의 차별화된 기능이다.

이번 공모전 최종대상의 영예는 영국과 덴마크의 디자인팀 스위프트 크리에이티브스가 차지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키네틱 데코' 작품은 실내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물고기 모양의 모빌 장식이다. 방 안의 조도 변화에 따라 물고기 색상이 바뀌고, QLED TV의 모션 센서를 통해 사람이 다가오면 물고기의 그림자

가 도망치는 연출을 보인다.

이 작품은 매직스크린만의 핵심 가치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현재 제공 중인 매직스크린 콘텐츠와 연계성,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승 상금 8000유로의 주인공이 된 스위프트 크리에이티브스팀의 매튜 커커릴은 "우리의 디자인은 일상 생활 공간에 있는 소비자에게 평온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며 "IFA에 전시된 것만으로도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찼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서윤 기자

코웨이, 7년만에 참가... 유럽·중동 판로개척 나서



공기청정기 등 환경가전으로 승부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환경가전으로 유럽, 중동 등을 추가 공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코웨이는 5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18'에 7년만에 참가, 유럽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다

올해로 58년째를 맞는 IFA는 전 세계 1800여 기업이 전시 참여하고, 약 2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와 함께 세계 3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로 꼽힌다. 코웨이는 이번 전시에서 ▲깨끗한 공



코웨이 이지훈 글로벌 시판사업부부장(오른쪽)이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IFA 2018' 현장에서 코웨이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코웨이 공기청정기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코웨이

기 흐름을 만드는 차별화된 에어 디자인 기술 적용한 공기청정기 9종 ▲RO멤브레인·나노트랩 필터 등 다양한 필터 시스템을 갖춰 지역 수질 환경에 따라 맞춤 사용 가능한 정수기 10종 ▲주스프

레소 2종 ▲리유청정기 1종 등 총 22종을 선보였다. 특히 코웨이는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가 전세계 관심사로 부상하며 유럽 시장에서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상황과 용도에 따라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듀얼 흡입·트리플 흡입·4면 흡입 등 다양한 필터 시스템을 갖춘 공기청정기 라인업을 전시,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이미 국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코웨이 트리플과워 공기청정기'는 좌우 강력한 흡입은 물론 바닥 공기까지 청정케어하는 트리플과워 시스템을 탑재한 대용량 제품으로 실내 공기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이 감지되면 오염 정도에 따라 풍량이 자동 조절되는 등 차별화된 특징이 주목받으며 인기를 얻었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스 둘러보는 조성진 부회장

▲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IFA 2018 전시장 내 LG전자 부스에서 LG 클로이 슈트봇을 살펴보고 있다.

▲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왼쪽)이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LG전자